

온달[溫達]

고토 회복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전장에 떨어진 별

미상 ~ 590년(평원왕 32)



삼국사기 온달 기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1 개요

온달(溫達, ?~?)은 평원왕대(平原王代, 재위 559~590)와 영양왕대(嬰陽王代, 재위 590~618)에 활동한 고구려의 장군이다.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모자라다는 평가를 받아오다가, 평원왕의 딸 평강공주(平岡公主)와 결혼하여 그녀의 내조를 받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큰 공적을 세우고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이후 영양왕대에 고구려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던 신라에 빼앗긴 한강 유역 수복을 위해 전장에 나섰지만, 결국 이루지 못하고 전장에서 사망한다.

2 바보 온달, 평강공주(平岡公主)와 결혼하여 능력을 펼치다

온달(溫達)은 고구려 평원왕대 사람으로 눈이 먼 늙은 어머니와 둘이 살았는데, 집이 매우 가난했고 외모가 아주 못생겼으며,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어리석어서 당시 사람들이 그를 '바보 온달(愚溫達)'이라 불렀다. [관련사료](#) 하지만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효심이 깊어서 음식을 구걸해서라도 어머니를 봉양했다.

당시 평원왕에게는 어린 딸 평강공주가 있었는데, 그녀는 자주 울었다. 왕이 항상 그녀를 놀리며, 그렇게 계속 울기만 하면 아무도 결혼하려 하지 않아 바보 온달과 결혼할 것이라 하였다. 평강공주가 16살이 되자 왕은 그녀를 유력한 귀족 집안의 자제와 결혼시키려 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평소 왕이 그녀를 놀리며 했던 말대로 바보 온달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이에 왕이 화가 나 그녀를 왕궁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공주가 비싼 장신구 수십 개를 챙겨 가지고 홀로 궁을 나와 온달의 집을 찾아 갔다. 하지만 온달과 그 노모도 공주와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망설였다. 이에 공주가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함께 하게 되었고, 그녀가 챙겨 온 귀중품들을 팔아 농지와 집, 노비, 소, 말 및 여러 살림살이를 장만하였다. 그리고 남편을 잘 내조해, 온달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능력을 키워나가게 하였다. 특히 공주는 온달이 말을 사러 갈 때, 일반 시중의 것을 사지 말고, 전쟁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나라가 키우던 말 중 병들어 약해져 팔려나갈 말을 사오라고 조언하였고, 온달이 그런 말을 사오자 정성껏 보살펴 뛰어난 말로 키워냈다. 그리고 온달이 그 말을 타고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